

보도해명자료 (’18. 2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GM 주무부처’ 논란…산업부는 이름만, 권한은
금융위·기재부(’18. 2. 26, 연합뉴스 등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는 전반적 상황을 리드하지 못하고 한국GM문제 관련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에 혼선이 커지는 모양새라고 보도
 - 또한, 실제 구조조정 권한과 협상정보는 금융위와 기재부에 집중되고 있다며,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기재부나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입

- ☐ 정부는 한국GM 문제 관련 산업부, 기재부, 금융위 등 관계부처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있음,
 - 또한,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를 공식적인 대외 발표 창구로 일원화하여 대응하고 있는 바, 기사작성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
<문의처>
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박종원 (044-203-4320)	담당자	임채욱 서기관 (044-203-4327)
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김명규 (044-215-2750)		염철민 사무관 (044-215-2754)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김성조 (02-2100-2920)		김선욱 사무관(02-2100-2922)